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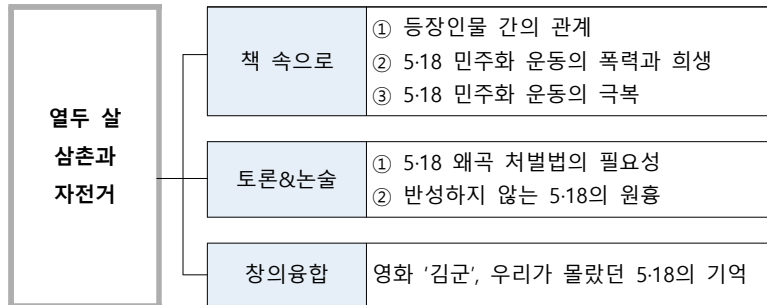
열두 살 삼촌과 자전거

- * 글 : 황규섭
- * 그림 : 오승민
- * 출판사 : 도토리숲
- * 정가 : 14,000원
- * 쪽수 : 186쪽
- * 대상 : 초등 4학년 이상

· 책 소개

민국의 가족인 강력계 형사 아빠, 자폐 성향이 있으며 왼쪽 다리를 잃은 삼촌, 동네 사람인 철공소 아저씨, 손수레 할아버지 등은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인공 민국은 자신의 자전거를 훔쳐간 도둑을 찾는 과정에서 아빠에게 5·18 때 자전거를 타다가 다쳐 열두 살에 모든 시간이 멈춰 버린 삼촌 이야기를 듣고, 자전거 도둑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손수레 할아버지와 얽히면서 1980년 5월에 벌어진 역사의 슬픈 진실을 알게 됩니다. 과연 민국이 자전거와 자전거 도둑을 찾을 수 있을지, 민국의 삼촌과 손수레 할아버지는 5·18 때 어떤 일을 겪었는지 읽어봅시다.

· 주요 독후활동



교안 개발 : 허니에듀

- ★허니에듀는 '공부가 꿀처럼 달콤한 세상'을 꿈꾸는 교육 전문가들의 모임으로, 유초등청소년 교육커뮤니티 '허니에듀'와 멤버십 서비스 '허니에듀북클럽'을 운영하며 다양한 독서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 허니에듀밴드 : band.us/@honeyedu
- 허니에듀카페 : <http://cafe.naver.com/honeyedu>



독서 전 ① 제목, 표지, 머리말 살피기

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책 미리 보기 : 제목, 앞뒤 표지, 머리말
- 책의 제목, 앞뒤 표지의 글귀, 그림을 살펴봅시다.

1. 책의 앞표지 그림에 나타난 인물과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다룰지 예상해 보세요.

인물	
배경	

- (2~4) 『열두 살 삼촌』의 뒤표지에 쓰여 있는 글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오월의 아픔을 간직한 / 삼촌과 자전거를 통해 / 오월 정신을 되살리는 동화

열두 살에 멈춰 버린 삼촌과 열두 살 민국.
작가를 따라 주인공 민국이 잃어버린 자전거를
찾아가다 보면 그 해 오월의 진실을 만나게 된다.
잃어버린 자전거가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
깊이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다.

2. '민국'의 '삼촌'이 열두 살에 멈춰 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상상하여 쓰세요.
⇒
3. 뒷글에서 주인공 '민국'이 '잃어버린 자전거'를 찾아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것을 찾아 쓰고, 그 말이 뜻하는 것을 써 보세요.
⇒
4. 이 책에서 되살리고 있는 '오월의 정신'은 무엇인지 인터넷에서 찾아 써 보세요.
⇒

5. 앞표지와 뒤표지를 살펴본 결과, 이 책의 핵심 소재는 무엇이라고 짐작되나요?

⇨

6. 작가의 말(7쪽의 글)을 읽고, 작가가 이 동화를 쓴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해 봅시다. 그리고 다음 내용을 완성해 보세요.

어린 너희들에게만큼은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즐겁고 신나는 세상을 보게 해 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서,

독서 전 ② 배경지식 알아보기

※ 다음 설명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5·18 민주화 운동

1980년 광주에서 시민들이 계엄령 철폐와 전두환 정권의 퇴진을 요구했던 민주화 시위로,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을 벌였다는 뜻으로 '광주 민주화 항쟁'이라고도 불려요. 1976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한 뒤, 전두환을 중심으로 일부 군인들이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잡고자 했어요. 1980년 초부터 전국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헌법을 만들고 민주적인 정부 수립을 요구하며 민주화 시위를 벌였어요. 하지만 군사 정변을 일으킨 군인들은 계엄령을 선포하여 모든 시위를 금지하고 신문, 방송 기사를 통제하며 대학에 휴교령을 내렸어요. 1980년 5월 18일 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전라남도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을 계엄군이 힘으로 억누르려고 했어요. 시민들은 자율적으로 시민군을 만들어 계엄군의 발포에 맞섰지만, 계엄군의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어요. 그 결과 많은 시민이 죽거나 다쳤어요. 1997년에는 5월 18일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었고, 국립 5·18 민주 묘지가 만들어졌답니다.

1.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떠했나요?

⇨

2. '5·18 민주화 운동'에서 광주 시민들이 요구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

3. '5·18 민주화 운동'의 진행 경과는 어떠했나요?

⇨

독서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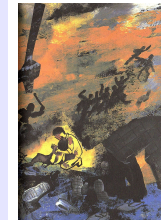
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이야기의 내용 정리하며 읽기

※ 『열두 살 삼촌과 자전거』를 읽으면서 이야기의 흐름을 정리해 봅시다. 다음 각 그림을 바탕으로 '민국'과 '민국의 가족'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쓰세요.

①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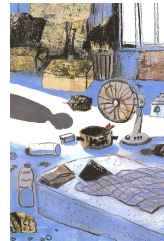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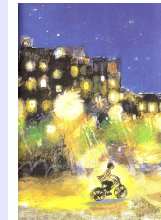
⑤



③



⑥



독서 후 책 속으로_ ① 등장인물 간의 관계

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등장인물의 성격을 정리하며 읽기

※ 다음은 『열두 살 삼촌과 자전거』에 나온 등장인물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야기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등장인물의 처지와 성격을 정리해 봅시다. 빈칸을 알맞게 채우세요.

① 민국	5·18 민주화 운동 경험자 ② 아빠	5·18 민주화 운동 피해자 ③ 삼촌(정욱)
 <p>부자 (父子)</p>	 <p>형제 (兄弟)</p>	
<p>자전거가 보관소에서 없어진 것을 알고 자전거와 도둑을 찾으러 나서면서 철공소 아저씨와 손수레 아저씨를 만난다. 아빠에게 삼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5·18 민주화 운동을 알게 되면서 삼촌을 이해하게 된다. 탐정이 되고 싶어 하며 머리 회전이 빠르며 꼼꼼한 편이지만 손수레 할아버지를 크게 오해하는 실수를 한다.</p>		

친구	5·18 민주화 운동 피해자	5·18 민주화 운동 경험자
<p>④ 근희, 석우, 경식</p> 	<p>⑤ 손수레 할아버지</p> 	<p>⑥ 철공소 아저씨</p> 
	<p>이웃</p> <p>말을 못하는 장애인인데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가족들을 모두 잃었다가 장애가 생긴 분이다. 몸집이 작고 왼팔을 잘 못 쓰며 컨테이너에서 살고 있고, 손수레에 고물을 모았다가 쓸모 있게 고쳐서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 주는 분이다.</p>	



독서 후 책 속으로_ ② 5·18 민주화 운동의 폭력과 희생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만일 저 공원에 장갑차가 등장한다면...’ / 민국은 상상해 보았다.
 ‘장갑차의 육중한 바퀴가 잔디를 짓밟고 팡팡 총을 쏘아 대며, 총소리와 최루탄 연기가 거리에 퍼진다면!’ /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지만 사실이었다. 저 공원 앞으로 장갑차가 지나가고, 거리가 온통 피로 물들었다. 어린 아들을 잃고 목 놓아 울고 있는 사진은 저 느티나무 아래서 찍은 것이었다. 늙은 엄마가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사진만 보아도 가슴이 뜨거워졌다. / 사진 속에서는 공원이 작은 야산처럼 보였다. 백화점이 있는 건물은 넓은 공터였고, 재래시장은 그때도 재래시장이었다. 흑백사진이고 초점도 맞지 않아서 흐릿했지만, 그날의 처참함은 그대로 전해졌다.

(나) “타타타탕!” / 귀청을 찢는 총소리가 들렸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지기 시작했다. 아빠는 순간적으로 귀를 틀어막고 엎드렸다. 총소리는 계속해서 들렸다. 사람들이 하나 둘 쓰러지기 시작했다. / 곤봉으로 내리치는 소리, 비명 소리, 군화발 소리.....
 “내가 정욱에게 갔을 때는 의식이 거의 없었지. 자전거에 깔린 채 짓밟혔는지 발은 피투성이였고..... 옆에는 바퀴 빠진 자전거가 쓰러져 있고, 신발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더구나.”
 아빠는 민국 앞에서는 피우지 않는 담배까지 피워 물었다.
 “그날 정욱을 보고 사람들 사이에서 빠져나오는 바람에 나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그런데 수많은 친구들과 정욱은.....”

1. 윗글 (가)에서 ‘민국’은 ‘저 공원’에 장갑차가 등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사실이라고 했어요. 만일 여러분의 집 앞 공원에 장갑차가 나타난다면 기분이 어떻게 써 보세요.
 ⇨

2. 윗글 (나)에서 ‘민국의 삼촌’은 왼쪽 다리를 어떻게 잃었는지, ‘민국의 아빠’는 목숨을 어떻게 건질 수 있었는지 쓰세요.

민국의 삼촌	
민국의 아빠	

3. 윗글 (가)~(나)를 읽고, 5·18 민주화 운동 때 벌어진 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써 보세요.
 ⇨



독서 후 책 속으로_ ③ 5·18 민주화 운동의 극복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요새 자전거를 훔치는 사고가 많아서요. 협조 좀 해 주세요.” / 다른 경찰이 나섰다.
 “여보쇼! 내가 시방 여그서 요런 싸가지 읊는 아그헌티 시상 살아가려면 싹수부터 파랏파랏 허야 헨다 하고 좋은 말로 타이르고 있었소. 그랑께 간단히 설명해 불면, 혼자 사는 불쌍한 이 할압씨가 엇그저께 나헌티 와설랑은, 어든 도둑놈이 남 집에 들어와서 하나밖에 읊는 아들 사진을 걸레 쫓가리로 만들어 부렸다고 가심을 통게통게허지 않겠소.”
 “그래서요?” / “이 할압씨가 말을 못하는 병어리라우. 5·18 때 가족들 다 잃고 반병신이 다 되어 부렸지라. 으메 징헌 거. 하나밖에 읊는 아들도 그때 잃어버렸는디, 아직까장 돌아올 거라고 저러고 허벌나게 지들리고 있는 거라우.”


(나) 삼촌은 절뚝절뚝 다리를 절면서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풀쩍 올라탔다. 자전거는 아빠가 숨어 있는 놀이터 주위를 천천히 돌았다. 가로등에 삼촌의 얼굴이 비쳤다. 삼촌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 옛날 자기보다 더 큰 짐바리 자전거를 그렇게 좋아했다는 삼촌. 그날 끔찍한 일을 겪고 나서 긴긴 시간 동안 마음을 단아 왔던 삼촌. 그런 삼촌이 다시 자전거에 오르고 있었다. 게다가 머리까지 써서 스쿠터를 숨겼다.
 ㉠삼촌은 어쩌면 열두 살에 갇혀 있었던 게 아닌지도 몰라.
 삼촌은 생각보다 훨씬 많이 회복되었는지도 몰라.
 아니면 옛날부터 정상이었는지도.....’

1. 윗글 (가)에서 ‘손수레 할아버지’가 ‘민국과 친구들’에게 당했던 일과,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당했던 일을 쓰세요.

민국과 친구들	5·18 민주화 운동

2. 윗글 (나)에서 ‘민국의 삼촌’은 자전거를 타고 놀이터 주위를 천천히 돌며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이 장면의 의미를 쓰고,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써 보세요.
 ⇨

3. 윗글 (나)에서 ‘민국’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삼촌’을 보면서 생각했던 ㉠의 의미를 쓰세요.
 ⇨

 **독서 후 토론&논술_ ① 5-18 왜곡 처벌법의 필요성**

※ 다음은 <5-18 왜곡 처벌법, 21대 국회의서는 통과될까>라는 뉴스 기사입니다. 이 글을 참고하여, 5-18 왜곡 처벌법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해 보세요.

일부 광주·전남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이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왜곡 및 폄훼 발언을 처벌하는 이른바 '5-18 왜곡 처벌법'을 발의할 것으로 보이면서, 해당 법안을 둘러싼 논의가 뜨거워질 전망이다. 찬성 측은 5-18 관련 가짜뉴스가 퍼지는 것을 막으려면 해당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지만, 일각에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5-18 왜곡 처벌법 찬성 측은 5-18의 역사적 합의가 이미 이뤄졌는데도, 이를 부인하거나 비방하는 이들을 처벌할 법안이 없어 5-18 관련 가짜뉴스를 차단하거나 유공자 명예를 보호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현행법에는 5-18 망언을 처벌하는 형법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5-18 관련 단체들은 명예훼손 소송을 통해 5-18 망언을 한 이들을 일일이 고소하고 있다. 문제는 피해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명예훼손 처벌이 힘들다는 데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5-18 왜곡 처벌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5-18의 숭고한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응해야 한다'면서도 '입법은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역사적 사실에 대해 정의하고 이를 부인할 시 형사 처벌하는 선례는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5-18 민주화 운동 왜곡 처벌법은 반드시 필요한가?

5-18 왜곡 처벌법으로 역사적 진실을 지켜야 한다

근거 :

5-18 왜곡 처벌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근거 :

 **독서 후 토론&논술_ ② 반성하지 않는 5-18의 원흉**

※ 다음은 <2년여 사자 명예훼손 재판, 2번 법정 선 전두환>라는 뉴스 기사입니다. 이 글에 나타난 '전두환 씨'에 대해 비판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을 써 보세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일 뿐이다.” 지난 2017년 4월에 펴낸 회고록에서 전두환 씨는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에 비유하며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전 씨의 이런 발언은 유족들은 물론 시민 사회 단체들, 피해자들의 가족들을 공분하게 했고 민.형사상 고소로 이어졌다. 5-18 기념 재단과 조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는 2017년 4월 27일 전 씨를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전 씨는 이듬해 5월 3일 재판에 넘겨졌다.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재판 기간에 전 씨가 광주를 찾은 것은 두 차례뿐이다. 전 씨 측이 알츠하이머와 고령 등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잇달아 불출석 사유서를 낸 탓에 재판은 공전을 거듭했다. 2019년 3월 11일 처음으로 광주지법에 출석했던 전 씨 측은 '헬기 사격의 진실이 확인된 것이 아니다', '회고록에 생각을 표현한 것뿐'이라며 혐의 부인으로 일관했다. 이후 1년여 동안 전 씨는 재판에는 나오지 않으면서 한가롭게 골프를 치거나 12·12 군사반란 당사자들과 호화 만찬을 즐기는 모습 등이 포착되어 공분을 사기도 했다. 재판장이 불출석 허가를 취소하면서 전 씨는 2020년 4월 27일 광주지법에 두 번째로 나왔다.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 많은 사람이 희생됐을 것', '그런 무모한 짓을 헬기 사격수가 하지 않았다고 믿고 있다'며 부인하였고,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이며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

Blank area for writing a response to the article.



독서 후 창의융합_ 영화 '김군', 우리가 몰랐던 5·18의 기억

※ 다음은 <영화 '김군', 우리가 몰랐던 5·18의 기억 담았다>라는 뉴스 기사입니다. 이 글을 읽고, 영화 '김군'을 인터넷에서 대여하여 시청하고 감상문을 써 보세요.

2019년 5월 23일에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김군'은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찍힌 한 사진 속 인물을 찾아 나서는 영화이다. 당시 사진 속 청년은 군용 트럭 위에서 군모를 쓰고 무기를 들었으며 매서운 눈매를 하고 있다. 극우 논객 지만원 씨는 그가 '북한특수군 제 1광수대'라는 주장을 펴왔다. 그는 1980년 5월 사진 속 광주 시민들의 얼굴에 붉은 점과 선을 긋고 '광수'라고 명명하며 현재 북한의 유력 정치인과 군인의 얼굴임을 주장했다.



영화 '김군'은 4년여 동안 광주 시민들을 만나 인터뷰하고, 사진 속 인물을 추적하며 지씨의 주장을 반박한다. 나아가 당시의 트라우마와 살아남은 자로서의 죄책감을 가지고 38년을 살아온 광주 시민들의 고백을 담아내 새로운 진실을 밝힌다.

추적의 단서가 되는 '김군'의 사진을 찍은 이창성 당시 중앙일보 사진기자는 '강상우 감독이 찾아와서 역사에 기록을 남겨보고 싶다고 했다'며 '나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다. 이 영화는 하나도 빠지도 않고 보태지도 않는 5·18의 기록이다'고 강조했다.

[예시답안과 가이드]

<도서명 : 열두 살 삼촌과 자전거>

출판사 : 도토리숲

■ 독서 전

◎ 독서 전_ ① 제목, 표지, 머리말 살피기

1. (예시답안)

- 인물 : 안경을 쓴 남자아이가 웃으면서 초록색 자전거를 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자전거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
- 배경 : 구름이 있는 파란 하늘 아래에 남자아이가 자전거로 풀밭을 달리는 것으로 보아 시골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

2. (예시답안)

민국의 삼촌이 열두 살에 멈춰 버렸다는 것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았거나 죽음을 맞이했다는 의미인 것 같다.

3. (예시답안)

그 해 오월의 진실 / 1980년 광주에서 시민들이 계엄령 철폐와 전두환 퇴진을 요구했던 5·18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말한다.

4. (예시답안)

‘오월의 정신’은 반민주, 군사 독재의 야만성을 폭로한, 민주주의를 향한 강한 의지 및 참여와 나눔을 통한 공동체 정신을 말한다.

5. (예시답안)

오월의 아픔을 간직한 삼촌과 자전거, 주인공 민국이 잃어버린 자전거

6. (예시답안)

그날의 상처와 고통을 이야기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단다. 하지만 그 일들을 이대로 덮을 수는 없는 일이기에, 조심스럽게나마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 해.

[예시답안과 가이드]

◎ 독서 전_ ② 배경지식 알아보기

1.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한 뒤, 전두환을 중심으로 일부 군인들이 군사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잡고자 했다. 그러자 전국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헌법을 만들고 민주적인 정부 수립을 요구하며 민주화 시위를 벌였다. 이에 군인들은 계엄령을 선포하여 모든 시위를 금지했고 신문, 방송 기사를 통제하며 대학에 휴교령을 내렸다.
2. 계엄령 철폐와 전두환 정권의 퇴진
3. 광주 시민들은 자율적으로 시민군을 만들어 계엄군의 발포에 맞섰지만, 계엄군의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고, 그 결과 많은 시민이 죽거나 다쳤다.

■ 독서 중

(예시답안)

- ① 민국은 엄마가 사 주신, 어른도 탈 수 있는 새 자전거를 타고 친구들과 공원에서 놀았는데, 그날 오후 이후에 없어졌다는 것을 알았다.
- ② 민국의 가족은, 마흔이 넘었고 왼쪽 다리가 없어서 목발을 짚고 다니며 거의 말과 표정 없이 지내는 삼촌과 일 년 가까이 함께 지내고 있었다.
- ③ 민국은 손수레 할아버지의 컨테이너에 들어갔다가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가 쓰여 있는 노트와, 젊은 할아버지와 중학교 학생이 찍혀 있는 낡은 흑백 사진을 보았다.
- ④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민국의 아빠를 만났던 삼촌은 군인과 시민들 사이에서 자전거를 타고 빠져나오다가 발을 다쳐서 의식을 잃었다.
- ⑤ 민국은 손수레 할아버지가 범죄자라고 생각해서 컨테이너에 갔다가 철공소 아저씨에게 들켰고, 할아버지가 5·18 때 가족을 잃었으며 자신이 오해했다는 것을 알았다.
- ⑥ 삼촌이 환하게 웃으며 민국의 자전거를 타고 놀이터를 돌더니 단지를 빠져나갔고, 이 모습을 민국의 아빠는 놀이터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고, 민국은 그 모습들을 베란다에서 지켜보았다.

[예시답안과 가이드]

■ 독서 후

◎ 책 속으로_ ① 등장인물 간의 관계

(예시답안)

- ① 민국 : 자전거가 보관소에서 없어진 것을 알고 자전거와 도둑을 찾으러 나서면서 철공소 아저씨와 손수레 아저씨를 만난다. 아빠에게 삼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5·18 민주화 운동을 알게 되면서 삼촌을 이해하게 된다. 탐정이 되고 싶어 하며 머리 회전이 빠르며 꼼꼼한 편이지만 손수레 할아버지를 크게 오해하는 실수를 한다.
- ② 아빠 : 강력계 형사이며 5·18 민주화 운동에서 다쳤던 삼촌을 안타깝게 여기며 정성스럽게 보살펴 준다. 삼촌이 집을 나가면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모두 알고 있으며, 아들인 민국과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한다.
- ③ 삼촌(정욱) :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자전거를 타다가 다쳐서 왼쪽 무릎 아래에 다리가 없어 목발을 짚고 다닌다. 나이는 마흔이 넘었고 아예 말을 하지 않거나 표정도 없이 지내다가 어느 날은 상태가 급격히 좋아지기도 하는 자폐 성향이 있다.
- ④ 근희, 석우, 경식 : 민국과 손수레 할아버지의 컨테이너에 가서 흑백 사진을 찍었던 근희, 컨테이너의 문에 ‘파렴치한 도둑 영감탱이’이라는 종이를 붙여 놓은 석우와 경식 등은 민국이 자전거를 찾는 것을 도와주려고 하지만 자꾸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 ⑤ 손수레 할아버지 : 말을 못하는 장애인인데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가족들을 모두 잃었다가 장애가 생긴 분이다. 몸집이 작고 왼팔을 잘 못 쓰며 컨테이너에서 살고 있고, 손수레에 고물을 모았다가 쓸모 있게 고쳐서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 주는 분이다.
- ⑥ 철공소 아저씨 : 고장 난 물건을 수리하는 철공소 주인이며, 민국에게서 민국이가 옛날에 잃어버린 자전거를 받아 수리를 의뢰받는다. 손수레 할아버지의 상황과 개인사를 잘 알고 있으며 몰래 컨테이너에 들어간 민국을 잡았다.

[예시답안과 가이드]

◎ 책 속으로_ ② 5·18 민주화 운동의 폭력과 희생

1. (예시답안)

우리 집 앞 공원에 장갑차의 육중한 바퀴가 잔디를 짓밟고 팡팡 총을 쏘아 대며 나타나고, 총소리와 최루탄 연기가 거리에 퍼진다면, 정말 무섭고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 집으로 도망쳤을 것 같다.

2. (예시답안)

- 민국의 삼촌 : 자전거에 깔린 채 군인들의 군화발에 짓밟혀서
- 민국의 아빠 : 정육을 보고 사람들 사이에서 빠져나오는 바람에

3. (예시답안)

5·18 민주화 운동 때에 나라를 지키는 군인과 장갑차가 나타나 자신들이 보호해야 할 국민을 총을 쏘아 죽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어떻게 사람을 곤봉으로 내리칠 수 있으며 군화발로 밟으며 총을 쏘아 죽일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어린 아들을 잃고 목 놓아 서럽게 울고 있는 늙은 엄마 이야기와, 동생인 정육이 다쳐 의식이 없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아빠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다.

◎ 책 속으로_ ③ 5·18 민주화 운동의 극복

1. (예시답안)

- 민국과 친구들 : 컨테이너에 몰래 들어가서 하나밖에 없는 손수레 할아버지의 아들 사진을 찢어 버렸음
- 5·18 민주화 운동 : 말을 못하는 본인데 가족들을 모두 잃었고 심한 장애까지 지니게 됐음

2. (예시답안)

삼촌가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자전거를 타다가 왼쪽 다리를 잃었던 고통과 아픔을 극복하고 있는 장면이다. 아직도 5·18 민주화 운동의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환한 웃음으로 그날의 일을 극복하기를 바라는 것 같다. 하지만 5·18 민주화 운동의 가해자이자 원흉인 전두환 씨는 반성하고 있지 않고, 여전히 5·18과 관련한 망언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현실을 보면 엄한 처벌과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시답안과 가이드]

3. (예시답안)

삼촌은 5·18 민주화 운동 당시의 열두 살에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족들의 생각보다 훨씬 많이 회복되었으며, 이미 옛날부터 정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의미이다.

◎ 토론&논술_ ① 5·18 왜곡 처벌법의 필요성

(예시답안)

[5·18 왜곡 처벌법으로 역사적 진실을 지켜야 한다]

근거 : • 법률적, 역사적 평가가 완료된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 5·18 왜곡 처벌법으로 역사적 진실이 왜곡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고 국민들이 올바르게 역사적 사실을 인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5·18 왜곡 처벌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근거 : • 5·18 민주화운동 왜곡 처벌법과 같은 규제는 국가와 정치 권력이 반대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 표현의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은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써, 그 표현으로 인한 해악이 중대하고 명백하며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때 고려되어야 한다,

◎ 토론&논술_ ② 반성하지 않는 5·18의 율령

답안 생략.

(가이드)

전두환 씨 측은 전 씨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 발포 명령을 내린 사실이 없어 법적 책임이 없다며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포 상황은 상부의 지시 없이 계엄군이 자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전두환 씨의 말과 행동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을 쓰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강제 수사와 5·18 민주화 운동의 학살에 대한 죄로 법정에 전두환 씨를 세워 과연 발포 명령 책임이 없는지 법적으로 따져 묻고, 전 씨의 진정한 사과와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글을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예시답안과 가이드]

◎ 창의융합_ 영화 '김군', 우리가 몰랐던 5·18의 기억

답안 생략.

(가이드)

영화 '김군'을 네이버나 유튜브에서 대여하여 시청하고, 느낀 점이나 생각을 쓰고, 지금도 남아 있는 5·18 민주화 운동의 상처와 아픔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